

#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 A Study on the Life of Aged in Cheju Island

高麗大學校 家政教育科  
講師 金 兌 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Lecturer, Tae Hyeun Kim

### <目 次>

- |                  |              |
|------------------|--------------|
| I. 緒 論           | 2. 老人의 家族關係  |
| 1. 研究의 目的        | 3. 老人의 價値觀   |
| 2. 調査方法 및 期間     | 4. 老人의 健康    |
| 3. 調査地의 背景       | 5. 바람직한 老後生活 |
| II. 研究結果         | III. 結 論     |
|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              |

### <Abstract>

In Korea, the collapse of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has caused the weakening the Patriarchal authority which represents the decrease of traditional attitude of respect for old age, influenced by the strong tendency of Materialism in ethics.

The urgent problem is how to solve the conflicts of the alienation almost every old people has felt from the society and family which they belong to and how to harmonize the respect for old age who used to have had in the past.

From 21st to 30th of July 1979, I explored the small village in Cheju Island with eight students which I selected on purpose that village had preserved the traditionalism. I collected the interview data from a sample of 221 persons of the village in Cheju Island.

I studied this small village in Cheju Island for the intention of suggesting the ideal model of regional society which both traditional and non-formal, although the phenomena of nuclear family system and materialism and industrialism are overwhelming in our present society.

Generally people in Cheju Island are economically poor and major occu

pation is farming, since the industrialization proceeds very slowly and there still strongly remains the traditionalism. Alienation and dissatisfaction of old people from their family and society in Cheju Island are less common in comparison to the main land.

Old people in Cheju Island usually value the importance of labour. Division of labour has been well observed in farming, and men and women in Cheju Island are equally regarded in comparison to the main land.

Old people are independent economically and spiritually from their offsprings and they organize the nuclear family system firmly. Also the old generation is ready to compromise with the new generation and they defy the authoritarianism.

## I. 緒 論

### 1. 研究의 目的

家族의 形態는 人間의 進化와 더불어 그 時代의 상황에 따라 여러 形態로 變化되어 왔다. 人間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生物學的, 社會學的으로 固定된 構造에 固着되지 않고 새로운 構造의 創造를 끊임없이 指向하고 있다.

Le Play<sup>1)</sup>는 家族의 形態를 ① 家父長制度(Patriarchal Type) ② 直系家族(Stem Family) ③ 不安定한 家族形態(The Unstable Type)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그는 傳統的인 價値觀에 새로운 價値觀이 添加된 直系家族을 理想的인 家族類型으로 보아 老人問題와 結付시켜 考察하고 있지만, 어떠한 家族形態이던 老人問題는 새로운 形態로 發生하기 때문에 이 問題를 精確하고 비판적인 事實로 糾明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方面에서 研究된바를 結合시켜야만 問題解決에 도달할 수 있리라 믿는다. Aries는 中世를 찬양하면서 大量敎育, 産業主義 및 業績動機등의 모든 現代化 過程을 排斥하지만 現代化는 不可

避한 過程으로 되었다. 이 새로운 社會構造는 傳統的인 家族構造를 解體시키면서 核家族의 展開狀況을 不可避하게 하여 老人들의 소외 問題가 切迫하게 되었다. 老人問題의 原因은 複合的이고 多樣한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要因만을 특히 強調하기는 어렵다. 韓國에서는 지난 오랜 歲月에 걸쳐 儒佛仙의 傳統文化의 영향하에서 三代家族制度(Three generation family system)를 존속시켜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老人들은 愛親敬長의 가치觀 속에 子女들에 의해서 扶養받고 社會로부터 尊敬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産業化社會(Industrial society)의 도래로 因한 生活構造의 變化, 人間수명의 연장, 價値觀의 顛倒, 老後保障制度의 缺如등은 앞으로 老人問題를 보다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老人問題의 類型을 살펴보면<sup>2)</sup> 대체로 孤獨, 疎外, 病苦 및 生計등을 豫知할 수 있는데 조만간 韓國에도 부딪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濟州島 老人生活의 類型도 앞으로 수립되어야 할 老人政策(Ageing Policy) 심의과정에서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이 小考를 내놓기로 했다. 최근 濟

州島는 陸地文化가 많이 진달되고 젊은이의 本土와의 交流가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傳統的인 관습이 비교적 많이 殘存해 있다. 육지의 生活慣習은 形式과 傳統이 同一視되고 있는데 비하여 濟州島의 경우 家族間의 관계는 유교의 傳統的慣習이 무시된 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融通性을 지니도록 構造化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섬 住民들의 生活慣習의 모델은 核家族化 현상속에서 이에 適用될 수 있는 모델로써 제시할 수 있을가 하는 의도에서 이를 分析하여 보았다.

## 2. 調查方法 및 期間

本調査는 1979年 7月 20日~30日까지 10日間 조사원 8名과 함께 濟州島에서 現地調査하였다. 濟州島 全地域에 걸친 老人의 生活에 관한 研究는 아니지만 아직도 傳統的인 慣習이 많이 남아 있는 7個부락을 선정하고저 노력하였다. 표집 대상은 南濟州郡 大靜邑 東日里에서 27名, 武陵二里에서 18名, 新坪里에서 39名 및 力億里에서 26名과 安德面 和順里에서 40名, 沙溪里에서 54名 및 德修里에서 17名등 221名의 老人이며, 개인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이 221部를 문항마다 다시 分類하여 分析, 考察하였다.

## 3. 調查地의 背景

濟州島는 1978年 현재 男子 81,088명 女子 85,589名으로 合計 166,677名으로 어떤 면에서는 本土의 1個郡 人口에 不過한 적은 지역이다. 島民은 거의가 밭농사를 주로하고 있으며 特用作物로는 유채, 감귤 및 고구마가 經濟的 作物로 등장하게 되었다. 濟州島의 老人生活를 研究하는데 있어 언급하지 않고 지날 수 없는 것이 1948年 4月 3日에 發生한 4·3 事件이다. 이 당시에 이 섬에는

靑壯年들이 死亡되거나, 혹은 受難을 면하고져 本土 또는 日本등지로 密航하게 되었고 老人들은 젊은이들이 없는 社會에서 生計를 꾸려나가는 慣習을 形成하게 되었다. 現在는 經濟的으로 다소 부유해지고 文化的인 生活의 要求로 지방개발등 새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老人들은 아직도 초가에서 많이 居住하고 있다. 초가와 개량지붕이 병행하고 있는 住宅에서 居住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에 두가구가 사는 <두거리집> 以上이 많아 초가지붕 밑에는 老人들이 居住하고 개량지붕 밑에는 아들夫婦가 居住하고 있어 오늘날 老年學(Gerontology)에서 가장 理想的의 居住形態로 추천되고 있는 別居의 形式을 취하면서 同居하는 慣習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는 形成됨으로써 Family Care라는 면에서 이미 문제점이 해결된 狀況이라 하겠다.

## II. 研究結果

###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性別分布는 男子老人이 40.3%이며 女子老人은 9.7%이다.

年齡分布는 70代가 38.0%로 가장 높으며 60代가 37.1% 80代가 27.1%, 90세 이상이 3.2%나 되어 高齡者가 많다. 과거로부터 濟州島에는 長壽者가 많다는 기록이 있다.<sup>9)</sup> 老人들이 長壽하는 이유는 勞動이 習慣化되어 있고 촌락구조내에서나 家庭에서 精神的으로 받는 緊張이 적기 때문으로 解析된다.

敎育程度는 대부분이 無學者(77.8%)이며 서당및 국졸이 20.3%, 중졸 및 고졸이상 각각 0.9%를 나타내고 있다.

經濟水準은 농업수입, 축산수입및 노동수입등 세종류에서 계산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下流層이 53.2%로써 가장 많고, 中流層이 36.2%, 上流層이 10.4%이다. 下流

層에는 월수입 5만원 미만인 생활보호대상 자 및 연금받는 가구 21.7%가 포함되어 있다.

宗教分布는 佛敎와 儒敎는 本島의 固有한 巫敎의 基반위에 加味되어 각기 47.5%, 및 19.0%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기독교는 4.5%, 천주교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表 1〉 老人의 性別, 年齡, 敎育, 經濟水準 및 宗教의 分布

구분	수	實數	%
性別	男子老人	89	40.3
	女子老人	132	59.7
年齡	60代	82	37.1
	70代	84	38.0
	80代	48	21.7
	90세이상	7	3.2
敎育程度	無學	172	77.8
	서당, 국졸	45	20.3
	중졸	2	0.9
	고졸이상	2	0.9
經濟水準	上	23	10.4
	中	80	36.2
	下	118	53.4
宗敎	불교	105	47.5
	유교	42	19.0
	기독교	10	4.5
	없다	34	15.4
	기타	30	13.6
計		221	100.0

〈表 2〉 종교의 비교

	원규식(대구)	이효재(서울)
불교	9.8(%)	26.7
유교	—	—
기독교	4.5	25.3
천주교	2.5	7.3
무종교	82.3	39.0

여 육지의 老人들을 對象으로 조사한 두 敎授의 宗教分析과 비교해보면 濟州島에는 바닷가라는 특성으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정착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老人의 過去 및 現在의 職業狀況

	過去		現在	
	實數	%	實數	%
농업	176	79.5	132	59.8
공무원	4	1.9	—	—
상업	4	1.9	9	4.0
어업	4	1.9	—	—
海女	26	11.8	1	0.5
無	—	—	54	28.4
기타	7	3.0	25	11.3
計	221	100.0	221	100.1

〈表 3〉에서 過去의 老人들 職業을 보면 79.5%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海女출신이 11.8%이며, 공무원, 상업 및 어업이 각기 1.9%를 나타내고 있다. 現在에는 59.8%의 老人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 老人은 지금도 海女生活을 하고 있다.

2. 老人의 家族關係

(1) 子女와의 同居狀況

동회 서류에 기재된 家族形態와 實際로 居住하는 類型이 相異한 경우가 많아 집집

〈表 4〉 同居狀況

구분	性別		計	
	男	女	실수	%
一人家族	7.9	15.9	28	12.7
老夫婦家族	40.4	41.7	91	41.2
老人과長男外夫婦家族	10.2	6.1	17	7.7
老人과長男既婚夫婦	15.7	14.4	33	14.9
老人과未婚家族	21.3	18.9	44	19.9
老人과기타家族	41.5	3.0	8	3.6
計	100.0	100.0	221	100.0

마다 방문하여 現實的 類型으로 파악하였다.

〈表 4〉에서 老夫婦家族이 41.2%이고, 一人家族이 12.7%이다. 따라서 두 形態를 합치면 53.9%老人이 子女와 別居하고 있다. 특히 女子老人의 別居率이 높아 老夫婦家族이 41.7%, 一人家族形態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濟州大學의 韓昌榮教授<sup>6)</sup>의 조사에서도 濟州市는 54.3%, 海岸지대는 49.8%, 山間地帶는 59.8% 등으로 평균 54%의 別居率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長男과 同居하는 老人은 7.7%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長男外的 既婚子女와 同居하는 老人이 14.9%이다. 子女와 別居하는 비율이 많아 經濟的 및 精神的으로 子女와 獨立된 關係를 形成하므로 家族間의 갈등이 육지에 비해 적었다. 또한 本島에서는 老夫婦가 獨立해서 居住하다가 아주 노쇠하여 노동력이 없어 子女와 合家할때 반드시 長男이어야 한다가 보다는 능력있는 子女가 모시는 Stem Family 形態를 취하고 있다.

子女와 別居하는 이유는 〈表 5〉에서 제주도 풍습이 33.5%, 자립정신이 20.0%이고, 그 다음이 직장문제, 정신적인 안락순서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男, 女를 비교해 볼때 자립정신은 男 27.0%, 女 15.2%로 男子老人이 높고, 직장문제로 別居하는 것이

〈表 5〉 別居이유

이유	性 別		計	
	男	女	실수	%
제 주 도 풍 습	31.5	34.8	74	33.5
직 장 문 제	21.3	18.2	43	19.4
자 립 정 신	27.0	15.2	44	20.0
정 신 적 안 락	12.4	15.2	21	14.1
기 타	5.6	11.4	20	9.0
무 응 담	2.2	5.2	9	4.0
計	100.0	100.0	221	100.0

男 21.3%, 女 18.2%로 男子老人이 높고, 정신적인 안락은 男 12.4%, 女 15.2%로 女子老人이 다소 높다.

(2) 子女와의 經濟的 關係

〈表 6〉 經濟的 關係

구 분	동거사항	
	同 居	別 居
자 립	38.4	50.8
의 존	46.2	27.9
공 동 부 담	15.4	22.3
計	100.0	100.0

〈表 6〉에서 子女와 同居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老人이 38.4%, 의존이 46.2% 자녀와 공동부담이 15.4%이다. 반면 子女와 別居하면서 경제적자립이 50.8% 의존이 27.9%, 자녀와 공동부담이 22.3%이다.

(3) 財產相續 및 祭祀相續

〈表 7〉 相 續

구 분	相 續	
	財產相續	祭祀相續
現 在 本 人 이 소 유	11.7	35.3
長 男 에 게 相 續	16.7	8.6
아 들 간 에 均 分 상 속	53.4	42.5
均 분 이 나 長 男 무 대 상 속	9.1	—
딸 에 게 상 속	9.1	—
기 타	—	13.6
計	100.0	100.0

〈表 7〉에서 아직도 財產 및 祭祀를 상속하지 않고 老人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각각 11.7%, 35.3%이며 아들간에 均分相續이 재산은 53.4%, 제사는 42.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長男에게만 相續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이 16.7% 제사상속이 8.6%로서 육지에 비해 낮다. 17세기 중엽까지의 韓半島 陸地에서의 財產相續이 男女나 長次男의 구별없이 均分相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男子위주이며 長男우위의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제주도의 재산상속은 원칙적으로는 女子에게 分配해주는 경향이 적었지만 아들間에 均分制度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조선中葉까지의 육지의 상속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들間에 재산을 均分함으로써 私有慾을 조장하는 社會의 不平等을 극복할 수 있다.

#### (4) 權力權 및 代表權

〈表 8〉 권력권 및 대표권

구분	권리	權力權	代表權
老人 위주		57.9	38.2
아들 위주		42.1	61.8
計		100.0	100.0

〈表 8〉에서 老人들이 家庭에서 家長으로서의 권력과 家를 代表하는 권한이 얼마만큼 부여되고 있는가를 볼 때 아직 老人위주가 권력권은 57.9%, 대표권은 38.2%이며 아들위주가 권력권은 42.1%, 대표권은 61.8%이다.

William stephens가 傳統的인 社會를 “Deference Societies 라고 하여 老人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제주도 가족은 傳統的인 老人에 對한 존경은 있지만 이들 家族은 “제도적 가족”에서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는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해 간다고 할 수 있다.

#### (5) 結 婚

##### ① 結婚年齡

〈表 9〉에서 老人들의 결혼당시의 年齡은 16~18세가 49.3%로 가장 많다. 男子老人은 19~21세가 32.6%, 女子老人은 16~18세가 62.1%로 가장 높다.

〈表 9〉 老人들의 結婚年齡

結婚年齡	性 別	男	女	計	
				실수	%
12 세 미 만		3.4	1.5	5	2.3
13 ~ 15 세		9.0	4.6	14	6.3
16 ~ 18 세		30.3	62.1	109	49.3
19 ~ 21 세		32.6	26.5	64	29.0
22 ~ 24 세		10.1	4.6	15	6.8
25 세 이상		14.6	0.7	14	6.3
計		100.0	100.0	221	100.0

##### ② 婚姻圈

〈表 10〉 婚姻圈

혼인권	성 別	男	女	計	
				실수	%
部落內婚		34.8	34.1	76	34.4
部落外婚(이웃部落)		33.7	36.4	78	35.3
部落外婚(면部落 및 육지)		31.5	29.5	67	30.3
計		100.0	100.0	221	100.0

老人들의 結婚당시 혼인범위를 보면 部落內婚은 男, 女老人이 각각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李萬甲教授가 조사한 陸地農村에서는<sup>9)</sup> 약 11.6%, 李翊燮教授가 조사한 陸地漁村에서는<sup>10)</sup> 약 25.8%가 部落內婚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때 제주도에서는 部落內婚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혼인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男, 女別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 ③ 再 婚

現在까지 初婚狀態가 계속되고 있는 老人은 67.0%, 再婚以上の 경험이 있는 老人이 전체적으로 33.0%이다. 男子老人은 再婚以上이 47.2%이고 女子老人은 男子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지만 陸地에 비하면 再婚以上이 23.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제주도 女

子女의 직업선택에 對한 老人들의 態度를 보면 <表 17>에서 “자녀에게 선택권을 준다”가 54.3%,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한다”가 32.5%,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게 한다”가 13.2%이다. 陸地에서 社會病理學的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는 父母의 子女에 對한 과잉간섭이나 老人自身이 갖고 있는 職業을 계승토록 强요하여 正統性을 유지하려는 陸地와 많은 대조를 이룬다. 陸地에서의 官僚主義나 出世主義思想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좋은 面은 Pearsons<sup>13)</sup>가 주장한 “사회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과 가치관을 지닌”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다. <表 17>에서 男, 女를 비교해 볼 때 “子女에게 선택권을 준다”가 男 41.5%, 女 62.9%로 女子老人이 높다. “父母가 원하는 職業을 갖게 한다”는 男 45.0% 女 24.2%로 男子老人이 높게 나타났다.

#### 4. 老人의 건강

##### (1) 老人의 病

일반적으로 老人에서는 老人性변화로 인하여 위장, 肺의 間質組織의 증식으로 腎實質細胞의 감소와 퇴화가 오고 肺 및 氣管의 彈力조직, 腎肺의 기능 및 피하 지방이 감소된다고 한다.<sup>14)</sup>

<表 18> 老人病의 종류

病	性 別		計		
	男	女	실수	%	
없	다	68.5	62.1	143	64.7
신 경	통	15.7	15.2	34	15.4
눈	병	2.2	6.1	10	4.5
귀	병	3.4	5.3	10	4.5
두	통	2.3	5.3	9	4.1
고	혈	4.5	1.5	6	2.7
기	타	3.4	4.5	9	1.8
計		100.0	100.0	221	100.0

제주도 老人들의 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表 18>에서 “病이 없다”가 64.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 신경통, 눈병, 귀병, 두통, 고혈압등의 순서이다. 눈병, 귀병 및 두통이 女子老人에게 많은 것은 30~40년간 海女生活을 계속한 老人들 때문이다

##### (2) 海女生活 및 勞動이 건강에 미친 영향

<表 19> 노동이 건강에 미친 영향

영 향	구 分	海女출신	일반老人
건강에 좋다		41.1	45.6
관 계 없 다		35.4	30.1
건강에 나쁘다		23.5	24.3
計		100.0	100.0

<表 19>에서 과거 해녀생활이 老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의 질문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가 41.1%, “나쁘다”가 23.5%, “관계없다”가 35.4%이다. 해녀출신이 아닌 노인들이지 젊은시절의 노동이 老後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건강에 좋다”가 45.6%, “관계없다”가 30.1%, “건강에 나쁘다”가 24.3%이다. 종합해 보면 海女生活이나 젊었을때의 勞動이 건강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각각 64.6%와 69.9%로 나타나고 있다.

##### (3) 병의 치료 방법

<表 20>에서 老人들이 병이 발생했을때 치료방법으로 심방을 찾아가는 것이 36.7%

<表 20> 병의 치료 방법

치료 방법	性 別		計	
	男	女	실수	%
병원및보건소에간다	40.4	9.9	49	22.2
약국및한약방에간다	31.5	17.4	51	23.1
심 방을 찾는다	11.2	53.8	81	36.7
食物에 의존한다	12.4	13.6	19	13.1
기 타	4.5	5.3	11	4.9
計	100.0	100.0	221	100.0

로 가장 높고, 약국 및 한약방에 가는 것이 23.1%, 병원 및 보건소에 가는 것이 22.2%, 食物에 의존하는 것이 13.1%이다. 심방을 찾아가는 것은 男 11.2%, 女 53.8%로 女子老人이 훨씬 높고 “병원 및 보건소에 간다”가 男 40.4%, 女 9.8%, “약국 및 한약방에 간다”가 男 31.5%, 女 17.4%로 男子老人이 높다.

실제로 病이 발생했을 때 심방을 찾는 老人은 조사에 나타난 비율보다 높다고 본다. 제주도 주민의 정신적 기저는 <샤머니즘>으로 모든 사고방식의 기둥이 되어왔다. 따라서 제주도의 巫俗信仰들은 질병, 기타의 災難을 神堂의 造化로 믿고 神堂에 나아가 제사를 지낸다. 심방은<sup>15)</sup> ① 家族中에서 책임자가 임시로 그 임무를 行하는 家族의 심방, ② 숙련되어 聯業의으로 從事하는 聯業의 심방, ③ 産母의 해산만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醫師의 심방등이 있는데 제주도 老人의 대부분은 家族의 심방의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

(4) 내세에 대한 태도

<表 21>에서 내세에 대한 老人들의 태도를 보면 “내세를 믿는다”가 45.8%, “내세를 믿지 않는다”가 37.3%, “모르겠다”가 16.9%이다. 男, 女를 비교해보면 “내세를 믿는다”는 男 29.2%, 女 53.0%로 女子老人이 높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男 51.7%, 女 31.1%로 男子老人이 높다.

<表 21> 내세에 대한 태도

性 別	男	女	計	
			실수	%
내 세 를 믿 는 다	29.2	53.0	101	45.8
내 세 를 믿 지 않 는 다	51.7	31.1	82	37.3
모 르 겠 다	19.1	15.0	38	16.9
計	100.0	100.0	221	100.0

5. 바람직한 老後生活

(1) 理想的인 老後夫婦關係

<表 22> 理想的인 老後夫婦關係

性 別	男	女	計	
			실수	%
인 화 하 여 백 년 해 로 한다.	44.9	40.2	93	42.1
노 동 을 중 요 시 하 며 가 정 을 발전 시 킨 다.	33.7	34.1	75	33.9
각 자 의 역할 에 충 실 한다.	11.2	22.7	40	18.1
기 타	10.2	3.0	73	5.9
計	100.0	100.0	221	100.0

<表 22> 老後에 서로 人和하여 백년해로 하는 것을 원하는 老人이 42.1%, “노동을 중요시 여기며 가정을 발전시킨다”가 33.9%,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가 18.1%이다. 기타에는 경제적 안정, 남자의 이해 및 자녀교육 등이 있다. 남녀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여자노인이 남녀의 역할에 있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부부관계를 더 원하고 있다 (男 11.2% < 女 22.7%)

(2) 바람직한 老後對人關係

<表 23>에서 바람직한 老後의 대인관계는 “예의바르게 사는 것”이 36.7%로 높고 “융화 및 인화”가 24.4%, “노동과 더불어 각자 생활 충실”이 19.9%로 높고 “기타”가 19.0%로 낮다.

<表 23> 바람직한 大인관계

性 別	男	女	計	
			실수	%
예 의 를 갖 춘 다.	39.4	34.9	81	36.7
융 화 및 인 화	24.7	24.2	54	24.4
노 동 과 더불어 각 자 생활 충 실	15.1	22.7	44	19.9
기 타	20.2	18.2	42	19.0
計	100.0	100.0	221	100.0

〈表 11〉 再婚에 관한 實態

再婚여부 \ 性 別	男	女	計	
			실수	%
初 婚 이 지 속	52.8	76.5	148	67.0
再 婚	38.2	22.0	63	28.5
三 婚	6.7	1.5	8	3.6
四 婚 이 상	2.3	—	2	0.9
計	100.0	100.0	221	100.0

성이 활동적이고 자기부양의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崔在錫教授는<sup>11)</sup> 濟州島의 이혼율 및 재혼율이 높은 이유를 離婚과 再婚을 容認치 않는 儒敎的 傳統의 稀薄과 女子의 生活力의 強靱性 및 核家族의 性격을 들고 있다.

### 3. 老人의 價値觀

#### (1) 勞 動 觀

〈表 12〉 老人의 勞 動 觀

勞 動 觀 \ 性 別	男	女	計	
			실수	%
勞 動 의 習 慣 化	42.7	45.5	98	44.5
富 의 수 단	31.5	27.3	64	29.0
自 立 의 수 단	24.7	19.7	48	21.5
기 타	1.1	4.5	7	3.2
무 응 답	—	3.0	4	1.8
計	100.0	100.0	221	100.0

〈表 12〉에서 老人들의 勞 動 觀을 보면 勞 動이 習 慣 化된 老人이 44.5%, 富의 수단이 29.0%, 自 立의 수단이 21.5%이다. 性別을 비교해 볼때 男子老人이 勞 動을 富의 수단이나 自 立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다소 많고 女子老人은 勞 動의 習 慣 化가 다소 높다. 濟州島女性의 노동정신이 강한 면을 특히 海女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調査한 해녀 출신의 老人中 44%가 50에서 60세까지 고된

海女生活을 계속 했다.

過去로부터 濟州島는 多石과 低級한 토질 등 劣條件의 自然環境을 克復하기 위하여서 勞 動은 不可缺한 習 慣으로 되어왔다. 勞 動은<sup>12)</sup> 단순히 人間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手段이 아니라 勞 動 그 자체가 하나의 習 慣 그리고 目的으로 간주 된다. 그리하여 老人이 되어도 끊임없이 勞 動을 계속하고 있다. 勞 動을 重要視하는 觀念이 뿌리박혀 있는 이섬 住民들은 老後에도 經濟的으로 自 立할 수 있고 健康히 長壽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 (2) 土地에 對한 價値觀

〈表 13〉 土地에 對한 態度

土地에 對한 태도 \ 性 別	男	女	計	
			실수	%
애착심이 강하다	43.8	22.7	69	31.4
애착심이 미비하다	22.5	25.0	53	23.8
애착심이 없다	18.0	37.1	65	29.5
무 응 답	15.7	15.2	34	15.2
計	100.0	100.0	221	100.0

老人들의 土地에 對한 態度를 보면 〈表 13〉에서 土地에 對한 애착심이 강하다가 31.4%이고, 土地에 對한 애착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는 53.3%로 높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념은 있지만 土地가 자신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애착은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결혼하면 대다수의 老人이 土地를 아들간에 均分히 배분해 준다. 제주도 老人들에게는 土地가 勞 動을 실현하고 경제생활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 육지의 전통적인 농촌에서처럼 토지를 富의 척도나 권력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男, 女 별로 볼때 애착심이 강하다는 男 43.8%, 女 22. %로 男子老人이 높고 “애

작심이 없다”는 男 18.0%, 女 37.1%로 女子老人이 높다.

### (3) 離婚과 再婚에 對한 態度

〈表 14〉 離婚 및 再婚에 對한 態度

態 度	구 분	
	離 婚	再 婚
절 대 반 대	11.7	8.8
허 용 적	44.7	54.9
부정적이나 과거보다 완화	43.6	36.3
計	100.0	100.0

〈表 14〉에서 離婚 및 再婚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老人이 각각 44.7% 54.9%이고 “부정적이나 과거보다 허용적이 되었다”가 각각 43.6%, 36.3%로써 대체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절대반대는 이혼 및 재혼에서 각각 11.7%, 8.8%이다.

### (4) 陸地에 對한 態度

〈表 15〉 陸地에 對한 態度

態 度	性 別		計	
	男	女	실수	%
육지가 살기 좋다	23.6	11.4	36	16.2
제주도가 살기 좋다	57.3	68.2	141	63.8
여행은 좋으나 제주도에서 살겠다.	15.7	14.4	33	15.0
부응	3.4	6.0	11	5.0
計	100.0	10.0	221	100.0

〈表 15〉에서 “제주도가 살기 좋다”가 63.8%, “여행은 좋으나 제주도에서 살겠다.”가 15.0%로 제주도 老人들은 이곳 생활에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육지가 살기 좋다는 老人은 16.2%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出稼人は 청년기 내지 중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년기에 들어서는 점차로 귀향하여 노년기에 들기까지는 대부분이 귀향한다.

男, 女를 비교해 볼때 “제주도가 살기 좋다”가 男 57.3%, 女 68.2%로 女子老人이 높고 “육지가 살기 좋다”가 男 23.6%, 女 11.4%로 男子老人이 높다.

### (5) 젊은이의 態度에 대한 평가

〈表 16〉 젊은이에 대한 老人들의 평가

항 목	평 가		計
	긍정적	부정적	
性 問 題	46.7	53.3	100.0
老人에 對한 태도	40.9	59.1	100.0
생 활 태 도	43.5	56.5	100.0
육 지 진 출	79.4	20.6	100.0

〈表 16〉에서 젊은이의 性問題에 對한 老人들의 평가는 性이 문란하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老人이 53.5%, 性개방은 시대적 추세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46.7%이다.

老人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평가는 40.9%, 부정적인 평가는 59.1%이다.

젊은이들의 생활태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43.5%, 부정적인 평가는 56.5%이다.

젊은이들의 생활태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79.4%, 부정적인 평가가 20.6%이다.

젊은이의 육지진출은 취업과 진학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79.4%, 부정적인 평가가 20.6%이다.

### (6) 子女에 實한 기대

〈表 17〉 子女의 職業선택에 對한 態度

態 度	性 別		計	
	男	女	실수	%
자녀에게 선택권을 준다.	41.5	62.9	120	54.3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한다.	45.0	24.2	72	32.5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게 한다.	13.5	12.9	29	13.2
計	100.0	100.0	221	100.0

의 생활에 충실"이 19.9%로 노동을 통하여 인간과의 접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男, 女를 비교 할 때 뚜렷한 차이는 없고 단지 "노동과 더불어 各者의 生活에 충실해야 한다."가 男 15.7%, 女 22.7%로 女子老人이 높게 나타났다.

(3) 村落構造內에서의 老人의 位置

〈表 24〉 村落構造內에서 老人 位置

性 別 항 목	男	女	計	
			실수	%
마을의회에서 영향력이 없어도 된다.	40.5	68.2	126	57.0
의견을 제시하면 젊은이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3.7	24.2	62	28.1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22.5	3.8	25	11.3
무 응 답	3.2	3.8	8	3.6
計	100.0	100.0	221	100.0

〈表 24〉에서 마을에서 老人의 바람직한 位置는 마을의회에서 영향력이 없어도 된다가 57.0%,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가 28.1%,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가 11.3%이다. 이는 촌락구조내에서 노인 스스로가 이미 다움세대와 타협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지에서 처럼 권위주의만 내세우지 않는다. 男, 女를 비교해 볼때 "마을 의회에서 영향력이 없어도 된다."는 男 40.5%, 女 68.2%로 女子老人이 높고,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男 22.5%, 女 3.8%로 男子老人이 높다.

(4) 中央政府에 期待하는 要望事項

〈表 25〉에서 바람직한 老後生活을 위한 中央政府에 期待하는 要望事項을 보면 "식량수매정책 원할"이 30.2%, "노후생활보장이 24.1%, "농산물가격인상"이 22.4%, "물가안정"이 11.2%, "노후복지시설건립"이 7.8% 등 경제적인 면에서의 정책지원과 노

〈表 25〉 中央政府에 期待하는 要望事項

性 別 항 목	男	女	計	
			실수	%
식량수매 정책 원할	39.3	27.9	67	30.2
노후 생활 보장	20.2	26.5	53	24.1
농산물 가격 인상	22.5	22.7	50	22.4
물 가 안 정	9.0	12.8	25	11.2
노후 복지시설 건립	5.6	9.1	17	7.8
기 타	3.4	4.4	9	4.3
計	100.0	100.0	221	100.0

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다. 男, 女를 비교해 볼 때 "식량수매정책 원할"은 男 39.3%, 女 27.9%로 男子老人이 높고 "노후생활 보장"은 男 20.2%, 女 26.5%로 女子老人이 높다.

(5) 老人의 유토피아

좀더 보람있는 社會 즉 유토피아에 對한 人間의 要求는 어느 時代와 社會를 막론하고 追求하고 있다. 西歐의 르네상스時代에 밝은 現實을 憧憬하던것 같이 濟州島에는 韓國의 어느 지역보다 이 유토피아에 對한 要求가 強한 곳이다. 濟州島老人들이 憧憬하고 追求하는 理想島는 版圖上에 나타나지 않은 이여도(IYEU 島)란 섬이다. 제주도 민요에서도 이여도에 해당하는 音首가 老人들의 노래, 海女들의 노래, 어부들의 노래 방아노래등에 남아 있다. 이여도로 가서 새로운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濟州島 老人들의 구원의 섬이다.

Ⅲ. 結 論

緒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産業化·核家族化 社會로 급변함에 따라 提起되고 있는 우리나라 老人問題의 해결책을 摸索함에 있어 어떤면에서는 제주지역 주민의 慣習과 意識構造를 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유익

할 것이라는 意圖에서 이를 分析하여 보았다  
本論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查對象者는 60세 以上の 老人으로  
教育程度 및 經濟水準은 매우 낮고 宗教는  
佛敎가 47.5%이다.

### 2. 老人의 家族關係

53.9%가 一人家族 또는 老夫婦家族形態  
이며 子女와 別居하고 있다. 특히 女子老人  
의 別居率은 높다. 長男과의 同居率은 매우  
낮다.

經濟的 및 精神的으로 子女와 獨立된 關  
係를 形成하고 있어 家族間의 갈등이 적고,  
自立精神이 강한 이점 老人들은 陸地老人들  
에게서 볼 수 있는 孤獨 및 소외라는 문제  
점에 있어서는 深刻性을 덜 內包하고 있다.

財産相續에 있어서는 53.4%, 祭祀相續에  
있어서는 42.5%의 老人들이 아들間에 均分  
相續을 하고 있다.

結婚당시 年齡은 18~18세가 49.3%를 차  
지하고, 陸地에 비해 部落內婚(34%)이 높  
게 나타났다. 再婚率이 높아 男子老人은  
47.2%, 女子老人은 23.5%가 再婚以上의  
경험을 갖고 있다.

### 3. 老人의 價値觀

勞動이 習慣化(男 42.7%, 女 45.5%) 되  
어 있고, 勞動을 重要視하는 觀念이 뿌리 박  
혀 있는 이 점 住民들은 老後에도 經濟的  
으로 自立할 수 있는 要因이 되고 있다.

離婚과 再婚에 대해서 대체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男 44.7%, 女 54.9%)

子女의 職業선택권은 子女에게 부여하고  
(54.3%), 正統性을 維持시키기 위하여 職  
業을 계승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性問題, 老人에 對한 태도, 생  
활태도에 對해서는 다소 부정적(평균 약 56

%)이고 육지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79.4%)

### 4. 老人의 건강

男 68.5%, 女 62.1%의 老人이 健康하다.  
病的 종류로는 神經痛, 高血壓과 海女출신  
老人에게 눈병, 귀병, 두통등이 다소 나타  
났다.

병의 치료방법으로는 診방을 찾아가는 노  
인이 36.7%로 가장 높다. 특히 女子老人의  
53.8%가 診방을 찾아간다. 제주도 老人은  
대개 가족적 診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젊었을때의 勞動이 老後의 健康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

### 5. 바람직한 老後生活

老後의 夫婦關係는 “人和하여 백년 해로  
하는것”(42%), 대인관계는 “예의를 갖추어  
야 한다”(36.7%), 村落構造內에서는 老人들  
이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老人 스스로가  
다음세대와의 타협의 자세를 갖는것(40.5%)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中央政府에 期待하는 要望事項은 식량수  
매 정책을 포함한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자  
원으로 노후생활을 안정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이 濟州島老人들의 실태 및 意識  
구조를 조사연구하는 과정에서 陸地慣習과  
는 判異한 지역 의 특수한 文化的 배경을 지  
닌 생활양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① 老人의 經濟的 自立度가 강한점 ② 한  
울타리안에서 別居形態를 취하는 居住의 慣  
習 ③ 제사와 재산 상속에 있어서 長男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다는 점 ④ 子女들을 結婚  
과 同時에 分家시키는 慣習등 이러한 것들  
은 오늘날의 産業化社會에 適應해 나가기에  
는 合理的인 制度들이라는 점에서 濟州島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深刻한 老人問題에 봉착

하는 일은 없으리라 추측된다. 同時에 앞으로 韓國의 老人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섬의 model이 많이 應用되는 方向에서 里程標를 設定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思慮된다.

### 參 考 文 헌

1. Peter Laslett and Richard Wal.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p. 16-17.
2. Bernard. J., *Social Problems at midientury*, (New York, Heny Holt, 1957)
3.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서울, 서울신문사출판, 1949), pp.188-189.
4. 權圭植, “核家族化와 老人問題”, 「省谷論叢」第4輯, 1973, p.620.
5. 李効再外 2人, “韓國 低所得層 老人生活에 관한 社會, 經濟 및 空間問題研究”, 梨花女子大學校「論叢」34집, 1979年, p.247.
6. 韓昌榮, 「濟州道 老人論攷」(서울: 韓一文化社 1978), p.119.
7. William Stephens, *Social change and the intimate Environment*, p.16.
8. Ernest W. Burgess and Harvey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American Book Company New York, 1953), p.111.
9. 李萬甲「韓國農村의 社會構造」(서울: 한국연구도서관, 1960), p.100.
10. 李翊燮, “韓國漁村言語의 社會言語學的考察” 「진단학보」, 1976, p.42.
11. 崔在錫, 「濟州道의 親族組織」, (서울: 一志社 1979), pp.186-187.
12. 멜포오드 스피로, 「유포피아로의 모형」 李効再譯.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p.17.
13. Talcott. Pearsons, *An outline of the social system in Theories of Society* (The Free Press Vol.1), p.38.
14. 徐舜圭 外 “老人病의 疫學的研究”, 「大韓內科學會雜誌」, 제13권 6호 p.17.
15. 진성기 「濟州叢書①」, (아림출판사, 1965), p.20.
16. 鄭漢淑, “IYEU 島” 「한국현대문학전집」(서울 三省版, 1970), p.25.